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농업 실현 범농업계 공동토론회 결과보고

1. 개최개요

- 목적: 남북농업협력 논의·관심 촉구, 농업계의 대북협력사업 제안
- 주최: 농특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후원: 통일부, 농식품부, 강원도, 농어촌공사, aT, 마사회, 한국농정
- 주제: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협력과제
- 일시: 2021. 2. 25(목) 14:00~17:30 (3시간 30분)
- 장소: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퀵룸(서울 광화문)
- 참석: 농특위원장, 기조강연자, 발표자(3), 토론자(6), 사회 등 관계자 26명, 유튜브 영상 조회 460명 (2021.3.4.기준) *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2. 주요내용

① 기조강연: 한반도 정세분석과 전망(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4, 5년 전부터 북한 농업개혁에 관심을 가져옴. 그동안 북한이 정말 개혁한다는 걸 믿게 하려면 농업에서 개혁이 있어야하고 중국식 개체농으로의 변화만 있다면 북한개혁을 믿을 수 있다고 한 분들이 많았음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포전담당책임제를 시범사업으로 4개 농촌마을에 도입,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시킴.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경쟁’ 강조, 2019년 신년사에 ‘다수확 농민’ 등장은 북한의 중요한 변화로 남북농업협력도 과거와 다를 것임
-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도전과 기회) 트럼프의 북미비핵화 협상을 승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는 가지 않을 것임. 민주당 정부는 북핵문제 등 한미 간 이견 조정 시 공화당 정부보다 우리 의견을 경청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을 설득할 공간이 넓어졌음. 그러나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이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능력과 용기가 전제돼야하므로 여전히 우리 과제로 남아있음

- (한반도 핵심문제 관련 미국정부 분위기와 대처) ① 북핵문제 발생 초창기 30년 전, 이렇게 30년 갈 줄 몰랐음. 북핵문제를 대충 다룬다면 또 30년이 금방 갈지 모름. 미국 조야에서는 북핵문제의 합의, 결렬로 진전이 없어 피로감이 만연하고 잘해야 본전이라 다루고 싶지 않음. 또한, 이란핵문제, 중동, 기후협약, 코로나19 등 다양한 국제이슈들로 대외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이고, 한반도 정책의 라인업 형성에도 시간이 걸림. 미국이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도록 설득할 해법을 마련하고 협의하는 능동적 태세를 갖추어야 함
- ② 미중관계에서 바이든정부가 트럼프정부보다 중국에 덜 강경할 이유가 없음.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고 압박하되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는 세련된 정책을 구사할 것임. 미국의 아시아정책 핵심은 대중압박정책이고 결국 한중관계가 중요하며, 미중갈등이 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도전요소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함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대응 전망) ①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5년 계획의 목표 미달을 인정하고 평가하면서 경제 어려움을 제재, 수해, 팬데믹 탓이 아닌 내부문제로 보고 ‘정비’와 ‘보강’이 등장함. 이번 대회 특징은 ‘김위원장의 노동당’으로 전환을 의미함
- ② 대남·대외정책에서 북한은 비핵화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을 취할 것임. 핵 도발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이 자극하면 달라질 수 있음. 북한도 백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여 북중상호 원조조약 60주년인 올 7월 계기로 북중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대처)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성(비핵화협상 진전, 북미관계 개선)과 2018년 비핵화협상 경험을 제시해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 예외·유예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미 설득과 관철이 필요함. 문정부의 대북지원액이 가장 적는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담대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음. 미국 주도의 북핵 해법을 한국이 주도하고, 국익에 기초한 전략적 균형외교가 필요함

② 주제발표 1: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농업공동체 협력방안

(김관호 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 농특위 남북위 위원)

-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한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하고 ‘(가칭) 평화농업협력단지’를 세워 교류의 거점으로 삼아야 함. 단지의 입지후보지는 접근성, 북한의 자체 발전계획, 우리의 대북 정책과 부합하는 개성공단, 원산, 금강산 배후지가 적합할 것임
- 특히, 북측의 수용가능성이 큰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에 협력단지를 만들면 남북 근로자들을 위한 식자재 공급 및 농산물 경제협력 확대가 가능하고, 또한 과거에 통일농수산에서 진행한 송도리 협동농장의 경험이 있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③ 주제발표 2: 식량주권과 남북공동 토종종자사업(선애진 전여농 부회장)

- 전여농이 추진해온 토종 씨앗 지키기 사업(토종 채종포)을 중심으로 식량주권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가능한 교류사업을 소개함
- 전여농은 10년 동안 소비자과 함께 공동채종포를 운영해오며 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만 벌어지면 즐겁게 할 수 있음. 다양한 식생을 지닌 금강산은 많은 토종종자를 끌어안을 수 있어 ‘금강산 토종 통일텃밭’을 추진했으면 함

④ 주제발표3: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교류센터 설치 구상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사무부총장)

- 일원화, 체계화된 교류 채널 개설을 통해 남북농업협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정부, 민간, 지자체 등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민간 차원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통일농업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남북농업협력의 단기, 중장기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당할 전문기구인 ‘(가칭) 남북농업기술교류센터’를 설치해 정치적, 정세적 변화에 따른 농업협력 이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함

5 토론

- 남북강원도는 지리적, 기후적으로 유사하여 농업환경 공동 대응 등 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역임. 금강산 공동 영농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축산·원예농산물 공동단지 조성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 전담조직 정비가 필요함(유명환 강원도 농정과장)
- 북한과의 가축질병 분야 협력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북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의 씨가 마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식물 방역과 검역을 교류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음(김소영 농민신문사 차장)
- 북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 남북 간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 끊임없이 제기되는 남북관계 개선의 요구, 정부는 이에 대해 속 시원히 답변한 적이 없음. 다 알면서 물어보느냐는 식의 반응은 돌파력이 없음(김영운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 유엔과 미국을 중심으로 오랜 대북제재를 하루아침에 걷어내기는 어렵기에 이것을 현실적인 장벽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교류하되, 한편에서는 예외조항을 확보하려는 실무적 노력이, 다른 한편에서는 원칙 없는 제재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병행해야 함. 기후변화·자연재해 대응,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등 당위적 목표 실현을 위해 남북이 농업협력에 나서야 할 때임(이태현 (사)통일농수산사업단 대표)
- 104남북공동선언의 유무상통(有無相通) 원칙을 살려 남측 쌀 50만 톤과 북측 지하자원을 교환하고, 북한 농민이 새만금에 내려와 농사를 짓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공동으로 식량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이것이 통일농업의 완결된 모습이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북정부가 직접적 당사자가 되어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함(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3. 금후계획

- (가칭) 평화농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민간 협조체계 구축 등 이행계획 수립(7차 본회의 의결, 2021.4.) 및 추진상황 점검

《참고》

□ 토론회 사진



개회사(농특위원장)



축사(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축사(이개호 농해수위원장)



기조강연(이종석 전장관)



주제발표(이관호 박사)



주제발표(선애진 부회장)



주제발표(서용석 부총장)



토론회 좌장(김영훈 위원장)



종합토론